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코 13,27)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hone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느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11/17(일) 연중 제 33 주일(본당 11:00, 공소 17:30)
- ▶ 11/19(화) 연중 제 33 주간 화요일(본당 20:00)
- ▶ 11/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본당 11:00, 공소 17:30)

◎세례식

- ▶ 일시: 다음 주 11/24(일) 교종 미사 중 (대상: 5명)

◎2025 사목회장 선출

본 투표-12월 1일 교종 미사 후
부재자 투표(12/1 미사 참석이 불가능하신 신자) - 각 구역 미사 후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 전례부 - 전례부원을 찾습니다. 문의: 전례 분과장 이미란 아네스
- ▶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찾습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주일학교 보조 교사 모집

- ▶ 고등학생(9학년 ~ 12학년) 중 주일학교 보조교사 봉사학생을 1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문의: 대표교사 박혜영 수산나

◎대림환

가정용 대림환 만들기 도와드립니다.

- ▶ 접수 및 문의: 11/24(일)까지, 전례부
- ▶ 일시 및 장소: 11/30(토) 12:00 친교실
- ▶ 참가비: \$20(재료비)

◎첫영성체 교리반

- ▶ 대상: 7세 ~ 12세
- ▶ 장소: 정혜실
- ▶ 교리 시작일: 12/8 오전 10:00
- ▶ 문의: 교육부

◎ 사목회의

- ▶ 11/29(금) 20:00 하상실

공소 소식

- ▶ 금일 간식은 조예정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 11월 공소 세례 축일자 2명
11/22 세실리아(이민성, 손경희)

단체 소식

◎합동 울뜨레아

- ▶ 일시 및 장소: 11/23(토) 18:00 한맘 성당

구역모임(소식)

- ▶ 11월 구역모임은 구역 미사로 대체합니다.
- 1 구역 11/13 (수) 12:00 이현상 월리엄 형제님 댁
- 2 구역 11/16 (토) 13:00 신용두 세巴斯찬 형제님 댁
- 3 구역 11/16 (토) 17:00 김경희 헬레나 자매님 댁
- 4 구역 11/30 (토) 18:00 전대원 요한 형제님 댁
- 5 구역 11/23 (토) 12:00 심현숙 카타리나 자매님 댁
- 6 구역 11/30 (토) 13:00 이정길 테오플로 형제님 댁
- 7 구역 11/22 (금) 18:00 임종선 요셉 형제님 댁

친교식사

- 11/17: 6 구역(비빔밥 \$5/\$3)
11/24: 7 구역 12/1: 1 구역 12/8: 2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8 명)			
주일헌금	\$1435	교무금	\$13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40

위령 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11월 본당 세례 축일자 (20명)

- 11/1 폐기 (조필기)
11/2 토마스 (이응석)
11/3 실비아 (윤은숙)
11/5 엘리사벳 (김훈옥, 조하은, 이상은)
11/10 레오 (김대현, 김은찬), 레아(차영은)
11/11 마틴 (김영상)
11/16 아네스 (이지우)
11/20 에드몬드 (최용욱)
11/22 세실리아 (김기린, 최샤니, 이옥화)
11/23 클레멘스 (강민수)
11/30 안드레아 (김의수, 이준규, 이종희, 이호현)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1/17	이인선 젬마	이준우 바오로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11/24	김의수 안드레아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유세진 라파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12/ 1	김성수 베드로	최아현 베로니카 송찬 아론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이인선 젬마 박규혜 카타리나

지금, 여기에서

초량 성당 주임
도정호 바오로 신부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가난한 무명가수, 간절함으로 뛰는 운동선수들의 땀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진심의 힘은 대단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작은 일에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른바 날개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들은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을 열게 합니다.

대림절이 가까우면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복음, 자신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게 하는 복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오늘 복음처럼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보다는 천재지변으로 불바다가 된 세상, 까무려칠 정도로 온통 혼란한 모습 같은 무서운 장면에 시선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 종말의 끔찍한 상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으려 해야 합니다.

하느님만 아시는 세상 종말(마르 13,32 참조)의 순간은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겁니다. 세상 종말의 상황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끔찍한 세상 종말을 내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 나의 죽음, 나의 종말이 먼저 올 겁니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세상 종말보다 먼저 나에게 오는 나의 종말입니다. 교회는 순서 없이 다가오는 각자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살아있는 나'에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매 순간 진심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나의 습관입니다. 나의 습관이 나의 일상입니다. 나의 일상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 하느님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 완전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하게 하느님을 향해 가는 나의 노력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다짐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종말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4. 11. 17.)

제 1 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1-3

화답송 시편 16(15),5 와 8,9-10.11(◎ 1 참조)



후렴.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둑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히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봐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0,11-14.18

복음 환호송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32